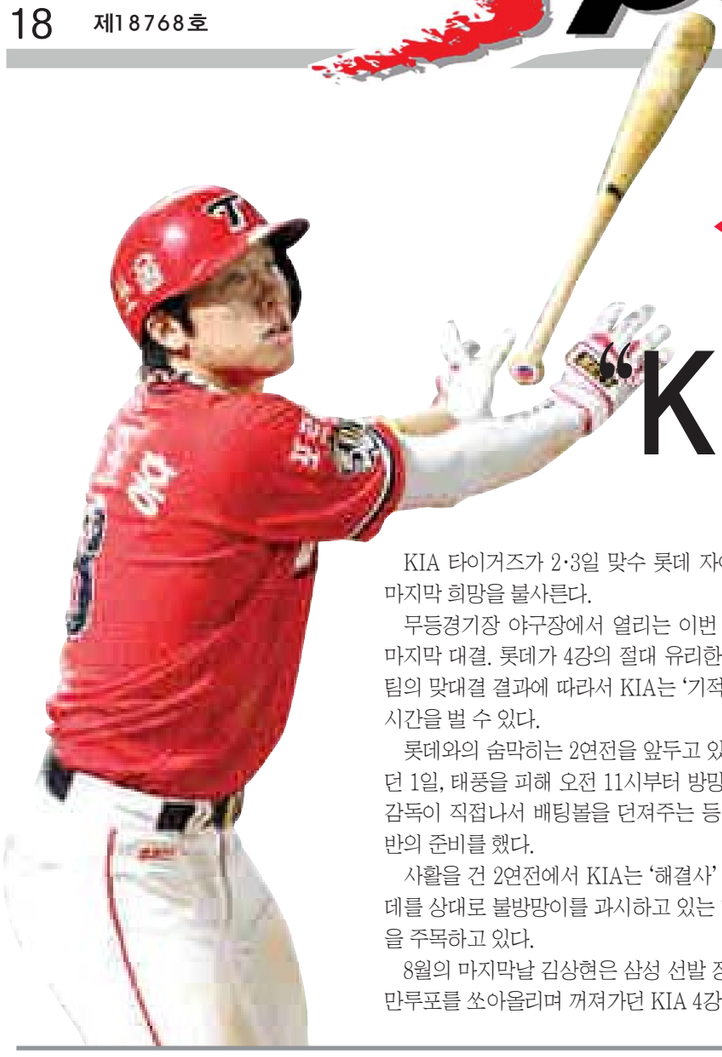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힘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 '롯데킬러' 안치홍 - '해결사' 김상현 ▶

"KIA 4강, 누가 끝났다 했나"

불방망이로 롯데 뒤짚기 앞장

무등경기장서 사활건 2연전

KIA 타이거즈가 2·3일 맞수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4강 마지막 희망을 불사른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양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 롯데가 4강의 절대 유리한 고지에 서있지만 두 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KIA는 '기적'같은 뒤집기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롯데와의 숨막히는 2연전을 앞두고 있는 KIA는 경기가 없던 1일, 태풍을 피해 오전 11시부터 방망이를 들었다. 조범현 감독이 직접나서 배팅볼을 던져주는 등 롯데전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사활을 건 2연전에서 KIA는 '해결사' 김상현과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불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는 '아기 호랑이' 안치홍을 주목하고 있다.

8월의 마지막날 김상현은 삼성 선발 장원삼을 상대로 역전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꺼져가던 KIA 4강 희망에 불을 지폈다.

김상현은 이날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하며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릎이 좋지 않지만 도루까지 감행하며 팀에 무엇보다 간절한 1승을 안겨줬다.

올 시즌 무릎 부상으로 수술대까지 올라야했던 김상현은 하반기 복귀 후 11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지난해 홈런왕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적시적소에 터진 김상현의 한방은 영양가 만점이었다. 지난달 7일 김상현은 두산과의 군산경기에서 만루홈런을 쏘아올리며 팀 통산 300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이 홈런은 두산전 7연패, 군산전 5연패의 사슬을 끊는 한방이기도 했다.

8월 15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린 김상현은 8월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막강 삼성 마운드를 침몰시켰다. 김상현은 물오른 방망이로 롯데의 마운드도 겨냥하고 있다.

'아기호랑이' 안치홍도 김상현과 함께 타선 전면에 나선다.

프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안치홍은 후반기 활약이 주춤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수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에서 유일하게 전경기 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시즌 롯데와의 경기에서 59타수 27안타를 때리며 0.458의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홈런 하나를 포함해 2루타 7개, 3루타도 2개를 만들어내며 거인 잡는 호랑이가 됐다.

'해결사' 김상현과 '롯데 킬러' 안치홍이 롯데의 4강 길목을 막아설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보배 '1위와 동점' 2위로 본선

〈광주광역시청〉

양궁 월드컵 10점횟수 적어… 광저우 AG 금 기대

한국 여자 양궁의 '차세대 에이스' 기보배(22·광주광역시청)가 국제양궁연맹(FITA) 4차 월드컵에서 예선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기보배는 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회 예선 라운드(70m 72발)에서 673점을 기록해 1위 저스티나 모스피네크(폴란드)와 동점을 이뤘으나 10점의 횟수가 적어 2위를 차지했다.

기보배는 10점을 41차례 쐈으나 모스피네크는 49차례 명중했다. 윤옥희(예천군청)는 673점을 기록해 3위로 뒤를 이었고 주현정(현대모비스)은 655점으로 7위를 마크했다.

베테랑 김문정(청원군청)도 645점을 쏘아 14위에 오르면서 한국 여자 대표팀은 4명 전원이 무난하게 64강이 겨루는 본선에 합류했다.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예선에서는 1999점을 기록해 중국(1944점)과 미국(1934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단체전은 개인 예선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상위 3명의 성적을 더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대표팀은 2일부터 세트제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본선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제대회다. 대표팀은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현지 분위기를 익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흑진주의 파워 코트의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미국)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부 단식에서 이탈리아의 로베르타 빈치에게 강력한 서비스를 날리고 있다. 윌리엄스가 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박주영 獨임대 모나코가 거절

AS모나코(프랑스)가 독일 분데스리가 신흥강호 호펜하임이 제안한 주축 공격수 박주영(25)의 임대를 거절했다는 프랑스 언론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라디오방송 RMC는 1일(한국시간) '박주영이 모나코에 남는다'는 제목으로 "호펜하임이 박주영을 임대 방식으로 영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모나코가 이를 거절했다. 모나코는 박주영이 팀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호펜하임은 1부리그인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2009-2009시즌 7위를 차지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발판삼아 독일 프로축구 신흥 강호로 자리매김한 팀이다. 올여름 박주영의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알려진 팀은 호펜하임뿐이 아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과 첼시 등에서 박주영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모나코가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해 무산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한국女하키 아르헨에 0대1 패

여자하키대표팀이 제12회 여자월드컵대회 예선 2차전에서 홈팀 아르헨티나에 0-1로 졌다.

대표팀은 1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예선 B조 2차전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후반 10분 칼라 레베치에게 내준 골을 끝까지 만회하지 못했다.

중국과 1차전에서 2-1로 이겼던 대표팀은 1승1패가 돼 B조 6개 나라 가운데 3위에 올랐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나란히 2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여자하키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로, 12개 본선 진출국을 두 개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르고 순위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세계랭킹 11위인 한국은 아르헨티나(2위), 중국(3위), 잉글랜드(6위), 스페인(8위), 남아프리카공화국(12위)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대표팀은 3일 잉글랜드와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운동선수 절반 "구타 당해봤다"

26%는 "성희롱 피해"

대한체육회 실태 조사

아직도 운동선수 가운데 절반이 지도자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 ·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1일 발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2.6%가 최근 1년간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선수 48.0%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5년 실태조사 때 78.1%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선수가 구타 피해의 경험을 안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체육회가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서울대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4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약 4개월간 선수 1830명, 지도자 210명, 학부모 110명 등 총 2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선수 62.0%, 지도자 44.8%가 '구타는 필요 없다'고 답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선수는 '규율 및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서'(57.5%)를, 지도자는 '정신력이 해이해져서'(58.9%)를 구타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본 선수도 2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 교육이 요구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지도자(62.9%)가 가장 많았고, 선배 선수(31.1%)가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로는 운동장(24.7%), 운동부실(21.1%), 합숙소(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